

‘사탄’ 은 무엇이며 우리를 꺾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는가?

강혜진 기자

입력 : 2016.10.05 14:01



©DesiringGod.org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후 2:11).”

존 파이퍼 목사는 4 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 중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 (DesiringofGod.org) 블로그에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 가지 전략’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에서 파이퍼 목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12:9~10), 세상의 주관자(요 12:31), 이 세상의 신(고후 4:4)이라고 표현한다” 면서 말문을 열었다.

파이퍼 목사는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벧전 5:8)이다. 그러나 가장 끔찍하고 원치않는 구속 가운데,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엡 2:2)을 따르고 있다. 사탄의 길은 분명히 파멸이며,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깨어 전쟁에 임하라’ 는 제목으로 기록한 ‘선한 싸움’ (딤후 1:18)에는 날마다 이 원수를 대적하고(벧전 5:9, 약 4:7), 날마다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엡 4:27), 날마다 그의 계략에 대항하는(엡 6:11) 것들이 포함돼 있다” 고 설명했다.

다음은 파이퍼 목사가 소개한 사탄의 전략 10 가지이다.

1.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요 8:44)”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창세기 3 장에 처음 등장한다.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었다(“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말은 교묘한 거짓말이었다(“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2.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후 4:4). 그는 거짓을 말할 뿐 아니라 참된 것을 숨긴다. 그는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우리가 사실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귀한 가치는 알지 못하도록 가리운다.

3.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 장 13~15 절에서 바울은 어떤 이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체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와 같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한다. 따라서 사탄의 종들이 스스로를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즉, 겉으로는 교회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말하지만 안으로는 바울 사도가 ‘귀신의 가르침(딤후 4:1)’이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들은 사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이 마치 양의 털을 쓴 늑대(마 7:15)와 같다고 하셨다. 사도행전 20 장 30 절 말씀은 이들이 무리들을 끌어내어 멸망으로 이끈다고 기록돼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별의 은사(빌 1:9)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둔함에 빠질 수 있다.

4.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9-10 절은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마치 이러한 기적들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사탄이 거짓된 기적들만 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설령 이것이 진리라고 해도, 사탄의 거짓은 거의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5.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짓게 한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실 때, 그분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고통과 순종의 길을 포기하길 바랬다(마 4:1-11).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삶에서 유다를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다(눅 22:3-6). 고린도후서 11 장 3 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6.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 장 1~9 절에 나타난 4 가지 밭 비유를 말씀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뿌려지는데 일부 씨앗은 길 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먹어버린다. 주님은 15 절에서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간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롬 10:17).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염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신앙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7.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허리가 굽어져서 스스로 펼 수 없는 한 여인을 치유해주셨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같은 일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눅 13:16)”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같은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음을 아신 것이다.

사도행전 10 장 38 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림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 증거한다. 즉, 사탄이 병으로 사람들을 누른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의 계획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 분명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사탄의 사자가 될 수 있다(고후 12:7). 그러나 질병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도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의 자비로운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을 데려올 필요를 못 느끼셨다.

8. 사탄은 살인자이다.

예수님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 8:44)” 고 말씀하셨다. 요한 사도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일 3:12)” 라고 전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서머나 교회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계 2:10)” 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피에 굶주려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를 충만케 하려고(요 10:10)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빼앗고, 결국 영원히 불행하게 만들고자 한다.

9.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7~18 절에서 자신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전도와 제자도를 싫어한다. 그는 선교사들을 비롯해 전도에 열정이 있는 이들의 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해물들을 던져 놓는다.

10.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한다.

요한계시록 12 장 10 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한다. 그러나 그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있다.

사탄은 욕에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한다.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해 ” 그들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주시는 이익만 바라본다” 고 참소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 1:11).”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 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히 7:25)’ 이 계시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다.

사탄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사탄의 계획을 소개했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것이다.

요한일서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골로새서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가복음 3: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한계시록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